[UCI]I804:24011-200000233060

*2006*년 *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논문

儒敎經典의 孝 考察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배 장 우

儒敎經典의 孝 考察

A Study of Filial Duty in Confucius Scriptures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배 장 우

儒敎經典의 孝 考察

지도교수 정 진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도덕윤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배 장 우

배장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성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진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재진 인

*200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目　　次>

ABSTRACT ····· ii

Ⅰ. 序　論 ····· 1

Ⅱ. 儒敎經典에 나타난 孝 ····· 3

1. 『論語』의 孝 ····· 3
2. 『孝經』의 孝 ····· 9
3. 『孟子』의 孝 ····· 16
4. 『小學』의 孝 ····· 25

Ⅲ. 儒敎的 孝의 本質과 問題 ····· 35

1. 孝의 本質과 價値 ····· 35
2. 經典에 나타난 孝의 通念 ····· 37
3. 孝思想의 問題點 ····· 42

Ⅳ. 結 論 ····· 46

參考 文獻 ····· 52

ABSTRACT

A Study of Filial Duty in Confucius Scriptures

Jang-Woo Bae
Advisor : Prof. Jin-ill Jeong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onfucianism seeks to find a harmonious way of living between human beings as well as between humans and nature. It seeks to understand the way how everyone lives in love, comfort, and harmony, the way of Heaven, out of which it pursues to find out humanity, a desirable way of living as humans. Confucianism believes that human nature is given by Heaven. Therefore, it tries to figure out how human nature is formed; what is needed for humans to build character, or the way to cultivate the mind.

In Confucianism, *In*, the perfect virtue of selflessness, is promoted as the first and foremost virtue of all. They say that *In* is accompanied with *Hyo*, filial duty, because *Hyo* is the source of all virtues. Hence, *Hyo* is the basis for the practice of *In* and the fundamental basis for the consideration of others. The phrase, *Hyo* is the beginning of all behaviors, expresses such a point very well. The phrase from *Noneo*, *Hyo* is the basis for practicing *In*,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most fundamental is the lov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practicing *In*. As such, since *Hyo* is the root of *In*, it is the

source of all virtues in that it is voluntary disposition of humanity. Thus, Confucianism which lays stress on the way of Heaven, makes all of teachings to begin from *Hyo*.

We have to cultivate *Hyo* before we develop *In*. That is why Confucianism always talks about *Hyo* when it comes to *In*. *In* is the love for others and can be extended to philanthropy. Then, it is said that the root of the love for others traces back to *Hyo*. Eventually, the true meaning of Confucianism is to establish the right social ethics with the spirit of love by starting from *Hyo* and expanding *Hyo* to philanthropy. Consequently, *Hyo* is the starting point of all ethics and all ethics are the expansion of *Hyo*.

Hyo is a concept. But when you analyze its practices in terms of its intrinsic value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Hyo* is the spirit of love, respect and affection; of not forgetting the root of ones life; and of appreciating ones life and returning the favor.

The first personal relationship in life i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moralit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the way of Heaven. It precedes any other personal relationships and is the most valuable and intimate relationship. Therefore, parents and children are supposed to love each other by the innate nature and the law of nature. Such love is *Hyo*, or the love of moral laws.

So, both love and respec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trinsic values of *Hyo*. *Hyo* is the return of love and there should be love and respect. Confucius said, Hyo is to provide well. But animals also raise and provide their family. Without respec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animals.

Mencius also said, If you feed but not love, it is like getting acquainted as pigs. If you love not respect, it is to raise an animal. It means that if you dont respect you parents it is not righteous filial duty.

Hyo is children obligation to their parents. It is based on love and respect for parents. In addition, the intrinsic values of *Hyo* lie in the cultivation of morals and gratitude. The most concrete way of practicing *Hyo* is to take care of ourselves. Confucius said that our body came from parents so that *Hyo* begins when you try not to get your body hurt. According to *Yegi Hyo* means that parents gave birth to you in perfect shape so that you have to complete your filial duty by some day returning your body in perfect shape to the earth. It means that you have to respect and love the root of life. It is translated as that my life came from my parents so that to care for my life is to love and respect my parents who are the root of my life. In that sense, *Hyo* is said to be the awe of live and the respect of life.

Moreover, the intrinsic value of *Hyo* can be found in the gratitude for the love of parents and the spirit of returning it. It is natural that children feel grateful to their parents for giving life and return the love. *Hyo* is children return of parents love for them.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to do favors and return them. The true filial duty starts when children realize parents love and favor from the bottom of the heart.

You received from parents your bod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So, that cannot be comparable to anything else. If you feel grateful for that, you cannot help

doing filial duty. Therefore, *Hyo* is the gratitude for parents love and its practice.

Lastly, without parents and ancestors, I cannot live here to enjoy culture. A human being who fails to do his filial duty is tantamount to animals. For animals, death is the end of all. Only humans have mourning, funeral, and religious ceremonies. In mourning and funeral, thing more important than having all equipped is that you have to grieve from the bottom of the heart, to serve with sorrow and solemn, to be courteous in ceremonies as if ancestors were in front of you, and to be pious. That is the most desirable way of doing filial duty which stresses taking initiative and setting an example of filial duty after parents die.

Confucius said, A filial son must do as much respect as he can when he is with parents; serves as much as possible when he supports parents; worries when parents are sick; grieves when parents die; and be pious when performing religious ceremonies. Although there are many steps in serving parents, you deserve to be called a filial son after completing those five steps.

Ⅰ. 序 論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족제도가 점차 변질되어 부부 중심의 核家族 制度가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풍요를 목표로 하는 산업화의 외길만 달려온 현대사회는 人間性의 상실과 퇴폐풍조를 만연시켜 왔으며, 심지어는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悖倫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물질문명과 복잡한 사회 환경은 인간의 非人間化 과정을 점차 확대시켰고, 傳統的인 價値觀은 차츰 해체되어 자기 중심적인 西歐的 價値觀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한 지나친 자기 중심적 利己主義는 不婚으로까지 이어져 이제 核家族制度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리하여 한국의 傳統的 孝倫理의 회복을 위해 孝의 敎育을 통한 人間性 回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孝는 앎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親愛하며 恭敬하는 것은 人倫에 앞서 天倫이다. 孝는 인간의 생명에서 우러나는 道理이다. 孝行은 시대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변하지만 孝心은 동서고금 없이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孝道' 라는 德目이 언제부터인지 현대인들에게 진부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오늘날 가정과 사회에서 悖倫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오랜 傳統倫理 根幹인 孝를 현시대에 알맞도록 되살림으로써 慈愛와 恭敬이 넘치는 가정, 사랑과 義로움으로 가득찬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生活倫理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민족의 이념으로 자리 잡은 儒敎[1]의 經典에 나타난 孝의 의미를 考察하여 재음미하고,

재조명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 논문은 Ⅱ장에서 儒敎經典 가운데 孔子의『論語』, 曾子의『孝經』, 孟子의『孟子』, 朱熹의『小學』에 나타난 孝思想을 고찰하는 것이다.

1장에서는『論語』, 2장에서는『孝經』, 3장에서는『孟子』, 4장에서는『小學』에서 언급하고 있는 孝思想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Ⅲ장에서 儒敎經典에 나타난 孝의 本質을 孝와 仁과의 관계를 연계해서 살펴보고, 더불어 孝의 本質的 價値가 어디에 있는지 提示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儒敎 孝의 通念을 摘示하여 傳統 孝思想의 현대사회에서의 倫理的 문제점 및 限界點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Ⅳ장 결론에서 問題點 및 限界點을 보완하여 未來 社會에 機能할 수 있는 새로운 孝倫理의 방향성을 摸索하여 보고자 한다.

---

1) 이광세교수는 유교는 우리문화의 전통과 의식구조의 중추라고 하였다.-이광세지음,『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p.63.

Ⅱ. 儒敎經典에 나타난 孝

1. 『論語』의 孝

1) 孝가 仁의 根本

『논어』에서 孔子의 제자 有子는 "부모에게 孝道하고 형에게 恭敬하는 사람치고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君子는 근본에 힘을 써야 한다. 근본이 서야 道가 생기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孝道와 형에 대한 恭敬이 바로 仁을 이룩하는 근본이다."[2] 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자 사상의 핵심인 仁의 의미를 말한 것으로, 공자는 모든 사람이 부모에게 孝道하여 仁의 德을 실천하는 것이 君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 마땅히 君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에서 보듯이, 공자는 孝悌가 仁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道德과 행실이 孝悌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孝는 부모에 대한 倫理이고, 弟 는 悌와 같은 뜻으로 아우가 형을 恭敬하는 倫理이다.

또한 仁은 흔히 人과 二의 合字로서 두 사람의 관계를 뜻한다. 그래서 공자는 '仁은 두 사람이다.(仁二人也)' 라고 하였다. 즉 '너와 내' 가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는 것이 仁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孝道하고 형제간에 友愛하는 생활을 몸에 익혀야 한다. 부모와 자식간의 縱的

---

2)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 務本 本立而道生 孝悌也者 其 爲仁之本與(論語. 學而篇. 2)

인 사랑과 협동을 한마디로 孝라 하고 형제간의 橫的인 友愛와 협동을 한마디로 제(弟=悌)라고 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는 원리가 곧 仁이라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원만해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자의 仁思想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이어서 형제간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의 시발인 부모와 형제간의 관계는 모든 윤리의 시발이고, 또한 仁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有子는 孝悌가 仁을 이룩하는 근본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논어」에서 공자는 "젊은이들은 안에서는 부모에게 孝道하고 밖에서는 年長者에게 恭遜하며 언행을 삼가하고 미덥게 해야 한다. 널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히 仁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들을 잘 행하고 나서도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3]고 하였다. 이는 仁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가정에서는 仁의 근본이 되는 孝道를 실천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연장자를 恭敬하는 悌를 실천하고, 특히 仁者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 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4]

2) 父母의 뜻 繼承

孔子는 "부모의 연세를 잘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다."[5] 라고 하여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孝道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늙은 부모를 모신 자식은 하루를 아껴서 정성껏

---

3)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而學文(論語. 學而篇, 6)

4) 임안홍, 이상임(譯). 『儒家의 孝道 思想』, 에디터, 2002, p.202.

5) 子曰, 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論語. 里仁篇, 21)

孝道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6]

또한 孔子는 "부친이 살아 계시면 어른의 뜻을 살펴 따라야 하고 이미 돌아가셨으면 생존시의 행적을 살펴 本으로 삼아야 한다. 삼년간을 두고 선친의 道를 고치지 않아야 비로소 孝라 할 수 있다."[7] 고 하였다. 또 曾子는 "孟莊子[8]는 孝道하였다. 다른 점은, (孝道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가 선친의 家臣을 그대로 두고, 또 정치방식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지킨 점은 남들이 따르기 어려운 것이다."[9]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 아버지가 쓰던 가신을 그대로 두고, 또 자기 아버지의 정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실천할 것을 말한 것이다. 공자는 "무릇 孝는 先祖나 부친의 뜻과 이상을 계승하고 아울러 先祖나 부친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10] 즉, 先祖가 남긴 이전의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孝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

3) 孝의 實踐 强調

孔子는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멀리 여행가지 않으며 부득이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방을 알려야 한다."[12]고 하였으며, "밖에 나가서는 公卿을 섬기고, 집안에서는 父兄을 섬기고, 喪禮에 정성을 다 기울여 치르

---

6) 차주환. 韓譯『論語』, 敎文社, 2005. 子罕篇.

7) 不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論語. 學而篇, 11)

8) 魯나라 大夫. 仲孫氏, 이름은 速.

9) 孟莊子之孝也 其他可能也 其不改父之臣與父之政 是難能也(論語. 子張篇, 18)

10) 孔子 曰 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 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論語. 子張篇, 17)

11) 張基槿. 『道德 倫理 孝道의 原理와 實踐』, 主流· 一念社, 1996, pp.98~103.

12) 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論語. 里仁篇, 19)

며 술로 인해 문란해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나는 쉽게 행할 수 있다."[13] 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다는 말일 것이다. 孝道는 물질적인 奉養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정신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부모를 편하게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식된 사람이 지킬 禮節은 다음과 같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갈 곳을 알리고, 귀가하면 반드시 對面하고 인사한다. 반드시 정해진 곳에 가서 놀며, 반드시 보람 있는 일을 몸에 익혀야 한다."[14] 고 하였다. 이 또한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근심을 덜어 드리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4) 孝行의 根本精神

子游[15]가 孝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말했다. "근자에는 孝를 供養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개와 말도 養育하고 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개와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16] 라고 하였으며, 또 제자 子夏가 孝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즐거운 낯으로 부모 섬기기가 어렵다. 일이 있으면 젊은이가 수고를 하고, 술이나 음식이 있으면 어른께 올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孝라 할 수 있겠느냐?"[17]라고 대답하였다. 자기를 낳고 양육해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정성껏 供養해 올리는 것은 기본적인 孝道일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 물질적 供養에도 진정한 사랑과 恭敬心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

13) 出則事公卿 入則社父兄 喪事 不敢不勉 不爲酒因 何有於我哉(論語. 子罕篇, 15)

14) 爲人子之禮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論語. 子罕篇, 16)

15) 孔子의 弟子, 吳나라 사람, 字는 言.

16) 今之孝子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論語. 爲政篇, 7)

17) 色難 有事弟子服其勞 有酒食先生饌 曾是以謂孝乎(論語. 爲政篇, 8)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를 모실 때는 부모의 안색을 살피고, 자기의 안색을 즐거운 표정으로 하고, 孝順하여야 恭敬의 孝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8]

5). 喪, 祭禮을 通한 孝誠

曾子는 "부모의 喪을 신중히 모시고 先祖의 祭祀를 잘 받들고 추모하면 백성들의 德性이 한결 敦厚하게 된다."[19] 고 하여 부모 死後의 孝行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자는 喪을 당한 사람 곁에서 음식을 드실 경우 배부르게 드시는 일이 없으셨다. 공자는 그 날에 哭을 하시면 종일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20] 고 하였으며, "공자는 喪服을 입은 사람을 보거나 혹은 관복 차림을 한 사람이나 소경이 나타나면 상대가 年少者라도 반드시 일어나 禮를 차리고 또 그 앞을 지나갈 때에는 총총걸음으로 걸었다."[21] 고 하였다. 또 공자는 "집에 한가롭게 있을 때에는 偉容을 차리지 않았다. 부모의 喪服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엄숙하게 얼굴빛을 고쳤다."[22]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자는 仁의 실천은 적극적으로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여 주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며, 仁을 사회적인 행동규범으로 나타낸 것이 禮라고 하였다. 특히 부모의 喪을 당하고 居喪하는 사람에게는 경건한 태도로 대해야 한

---

18) 張基槿(譯). 新完譯『論語』, 明文堂, 2002. 爲政篇.

19) 愼終追遠 民德歸厚矣(論語. 學而篇, 9)

20) 子食於有喪者之側 未嘗飽也 子於是日哭 則不歌(論語. 述而篇, 9)

21) 子見齊衰者 面衣裳者 與瞽者 見之 雖小必作 過之必趨(論語. 子罕篇, 9)

22) 居不容 見齊衰者 雖狎必變 見冕者與瞽者 雖褻必以貌(論語. 鄕黨篇, 15)

다.

또한 부모님의 "葬禮는 모든 이것저것 갖추기보다는 진심으로 哀痛해야 하고"[23], "진심으로 슬픔을 다하여"[24] 엄숙하게 치르고, 또 祭祀를 모실 때는 祖上이 앞에 계시듯이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敬虔하게 모시는 것이 최고의 孝道라고 말하고 있다.[25] 그리고 "禮를 행하되 敬虔하지 못하고 葬事를 치르면서 哀悼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그런 사람의 쓸모 있음을) 보겠는가?"[26]라고 하여 葬禮의 근본정신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

孔子의 제자 宰我가 '삼년의 服喪은 기한이 너무 오래입니다. 君子가 삼년이나 禮를 지키지 못하면 禮가 반드시 무너지고, 삼년이나 음악을 울리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시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묵은 곡식이 없어지고, 새 곡식이 상에 올라오고, 또 불씨를 일으키는 수나무를 바꾸어 새로 뚫어 새 불씨를 피우는 것처럼 (服喪도) 일년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가 '(그렇게 1년으로 居喪을 마치고)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어도 네 마음에 편하겠느냐?' 라고 되물었다. 宰我가 '편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공자가 '네 마음이 편하거든 그렇게 해라. 원래 군자는 喪中에 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안락하게 있어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에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 宰我가 나가자, 공자가 "予는 참으로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 삼년이 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듯이, 부모의 喪을 삼년 모시는 것은 천하에 공통된 禮法이다. 予도 자기 부모로부터 삼년동안 사랑을 받았을 터인데!"[27] 라고 말했다.

---

23) 喪, 與其易也 寧戚(論語. 八佾篇, 4)

24) 喪, 致乎哀而止(論語. 子張篇, 14)

25) 裵鈑齊. 『人性과 孝道』, 社團法人 韓國孝道會, 1998. pp.204~206.

26) 爲禮不敬 臨喪不哀 吾何以觀之哉(論語. 八佾篇, 26)

이 말은 부모는 나의 前身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공감하고 삼년간 居喪을 권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의 자식 된 도리로 지극한 孝誠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28]

2. 『孝經』의 孝

1) 孝의 根本과 始終

『孝經』은 "무릇 孝라고 하는 것은 德의 근본이고, 교육과 학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29] 라고 하여 孝가 모든 德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몸과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아니함이 孝의 시작이며, 몸을 세워 道를 실천하고 후세에 이름을 드높이어 이로써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孝의 끝마침이다."[30] 라고 하였다. 孝道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기 몸을 소중히 하여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終局에 立身揚名하여 부모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孝道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

27) 予之不仁也 子生三年然後 免免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論語. 陽貨篇, 21)

28) 張基槿(譯). 新完譯『論語』, 明文堂, 2002.

29) 子曰, 夫孝德之本也 敎之所繇生也(孝經. 開宗明義章)

30)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孝經. 開宗明義章)

2) 身分과 任務에 따른 孝

『孝經』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天子는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恭敬하는 천자는 감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사랑과 공경을 다하여 어버이를 받들어 섬기면, 도덕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스며들어 온 천하의 모범이 되니 이를 무릇 天子의 孝라 말하는 것이다."[31] 라고 하였다.

이는 천자가 몸소 부모를 공경하는 미덕을 실천해서 백성들에 모범이 되면 백성들도 그 본을 받아 어버이를 모시고 임금을 잘 섬겨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천자의 孝를 말하고 있다.

또한 제후의 孝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지위가 높아도 위태롭지 않고 욕망을 자제하고 예법을 삼가 지키면 권력이 가득 차도 넘치지 않는다.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온전하게 지킨 연후에는 그 사직을 보전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평화롭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諸侯의 孝라 한다."[32] 고 하였다.

그리고 선비의 孝는 "아버지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어머니를 섬기면,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아버지 섬기는 것과 같을 것이요, 아버지 섬기는 도리로 임금을 섬기면 그 공경하는 마음이 아버지 섬기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孝道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이는 곧 忠이 되는 것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섬기면 이는 곧 順從이 되는 것이다."[33] 고 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임금을 공경하여 충성하는 마음과 순종

---

31) 子曰 愛親者 不敢惡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敎加於百姓 刑於四海
蓋天子之孝也(孝經. 天子章)

32) 居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富貴不離其身 然後 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蓋諸侯之孝也(孝經. 諸侯章)

33) 資於事父 以事母其愛同 資於事父 以事君其敬同, 故以孝事君 則忠 以弟事長 則順(孝經. 士人章)

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능히 그 벼슬과 祿俸을 보존하고 그 조상의 祭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선비의 孝道라 하였다.

서민의 孝는 조금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런 생활이 바로 孝와 직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땅의 이로움을 얻어 자신의 몸을 삼가고, 근신하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일반 庶民의 孝道이다."[34] 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늘에 순응하여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지어, 몸을 삼가고 물자를 아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바로 서민의 孝道라는 것이다.

또한 孝道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에 충성할 수 없고, 가정에 충실할 수 없다. 孝誠이 지극하면 그 뜻을 하늘이 알아 반드시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재앙을 내린다고 한다. 그래서 공자는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孝道를 하지 않으면 환난을 입지 않는 자가 없다"[35] 라고 하여 不孝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36]

3) 孝治 强調

『孝經』은 "백성들에게 서로 친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孝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백성에게 禮儀 바르고 順從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友愛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37]고 하였으며, "무릇 孝란 하늘의 법도요, 땅의 올바른 의지이며 백성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다."[38]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감히 홀아비나 과

---

34) 因天之時 就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孝經. 庶人章)

35) 故自天子以下 至於庶人 孝亡終始 以患不及者 未之有也(孝經. 孝平章)

36) 권영한(譯).『孝經』,전원出版社, 2000.

37) 敎民親愛 莫善於孝 敎民禮順 莫善於弟(孝經. 廣要道章)

38) 夫孝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孝經. 三才章)

부라도 업신여기지 않으며,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감히 집안의 노비나 종에게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39] 고 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나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대할 때 차별을 하지 않고 존중함으로서 백성은 聖君을 섬기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온 세상이 화평하고 재해가 생기지 않으며 환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현명한 임금이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이다."[40] 라고 하였다. 이는 孝治를 강조한 말이라 할 수 있다.

4) 때에 따른 孝行方法

『孝經』은 "孝子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그 恭敬하는 마음을 다하고, 奉養함에 있어서는 부모가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났을 때는 근심을 다하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다하고, 祭祀를 모실 때는 엄숙한 마음을 다해야 한다."[41] 고 하였다. 부모를 모시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다 갖춘 연후에 능히 부모를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체로 이와 같으므로 살아서는 곧 어버이를 편안하게 모시고 돌아가신 후 祭祀를 지내서 영혼이 흠향을 하게 하는 것이다."[42] 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밑에 있어도 어지럽히지 않고, 추악한 무리들과 함께 있어도 다투지 않는다."[43] 고 하였다. 이것은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망할

---

39) 治國者 不敢侮於鰥寡, 治家者 不敢失於臣妾之心(孝經. 孝治章)

40) 是以天下和平 災害不生 禍難不作 故明王之以孝治天下也(孝經. 孝治章)

41) 孝之子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孝經. 紀孝行章)

42) 夫然故 生則親安之 祭則鬼享之(孝經. 孝治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밑에 있으면서 어지럽히면 형벌을 받을 것이며,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다투게 되면 싸우게 된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不孝가 된다고 하여 孝道의 방법과 처신을 말한 것이다.

『孝經』은 "아버지에게 諫言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몸이 불의에 빠져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식은 아버지의 불의를 간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하는 임금의 불의를 다투어 간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불의를 보고 다투어 간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아버지의 명령만 따른다고 어찌 孝道라고 할 수 있겠느냐?"[44] 라고 하였다. 孝道는 부모에게 順從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실천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諫言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불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자식은 반드시 간언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른 孝道라고 가르치고 있다.[45]

또한 父母喪을 당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 돌아가신 다음 喪祭를 올리는 법을 소상하게 말하고 있다. "孝子가 부모의 喪을 당하면 哭소리가 그치지 않으며, 禮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말을 꾸며서 하지 않으며, 고운 옷 입기를 불안해하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아니 하니, 이것은 슬퍼하고 哀痛한 정 때문이다. 관과 곽과 의금(衣衾)을 마련해서 葬事지내고 그 祭器를 陳設하여 哀悼하며, 가슴을 치며 痛哭하여 슬픈 가운데 지내며 明堂을 골라 편안히 모시고 宗廟를 만들어 靈魂을 섬긴다."[46]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誠心을 다해서 奉

---

43)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孝經. 紀孝行章)

44)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誼 故當不誼 則子不可以 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故當不誼 則爭之從父之命 又安得爲孝乎(孝經. 諫諍章)

45) 최준하(譯).「孝에 대한 儒·佛 經典의 譯註 및 比較考察」, 忠南大學校 出版部,2003.

46) 孝子之喪親也 哭不依 禮亡容 言不文 服美不安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哀戚之情也 三日而食 敎民亡以死傷生也 毁不滅性 此聖人之正也, 爲之棺槨衣衾 以擧之 陳其簠簋 而哀慼之 哭泣擗踊 哀以送之 卜其宅兆 以安措之 爲之宗廟 以鬼享之(孝經. 喪親章)

養을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禮와 孝誠으로서 슬픔을 다해, 禮와 誠心을 갖추어 喪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사랑과 恭敬으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슬픔을 다하여 섬기니 이로써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의 근본을 다 행하는 것이며, 살아 계실 때와 돌아가신 뒤의 禮儀가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孝子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이 끝났다 할 것이다."[47]라고 하였다.

孝道는 살아 있는 부모를 奉養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先祖를 받드는 것도 또한 꼭 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宗廟에 恭敬을 다 하는 것은 어버이를 잊지 않으려는 것이고, 몸을 닦고 신중히 하는 것은 先祖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에서이다."[48] 라고 하였다.

5) 孝行는 父母섬김에서 外的으로 擴張

『孝經』은 "하늘과 땅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것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의 행실 가운데 孝보다 더 큰 것은 없다. 孝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데에는 하늘을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49] 라고 하였다.

또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悖德이라 하고, 자기 부모를 恭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悖禮라 한다."[50] 라고 하여 孝道는 자기 부모를 먼저 공경한 연후에 남의 부모나 노인을 공경해야 도리에 맞다고 하였다.

또 "君子가 부모를 孝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임금에게 옮겨

---

47) 生事愛敬 死事愛慼 生民之本盡矣 死生之誼備矣 孝子之事親終矣(孝經. 喪親章)

48) 宗廟致敬 不忘親也 修身愼行 恐辱先也(孝經. 應感章)

49) 天地之性 人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大於配天(孝經. 聖治章)

50) 不愛期親 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悖禮(孝經. 孝優劣章)

충성을 다할 수 있으며, 兄을 恭敬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른에게 옮겨 順從할 수 있으며, 집에서 집안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관직에 옮겨 정치를 잘 할 수 있다."[51]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형을 공경하면 그 사람의 아우가 기뻐하며 남의 임금을 공경하면 그 신하들이 기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공경하므로써 천만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공경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기뻐하는 사람은 많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중요한 도리이다."[52]라고 하였다.

또한 『孝經』은 "孝道를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를 모두 恭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友愛를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兄된 자를 모두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모든 나라들의 임금을 모두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53] 라고 하여 孝悌는 자기 부모형제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부모형제에게 까지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54]

그리고 不孝에 대해 "다섯 가지 刑罰[55]의 종류가 삼천이나 되지만 不孝보다 더 큰 것이 없다"[56] 하여 모든 죄 가운데 不孝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 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임금을 강요하는 자나 다름이 없고, 聖人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큰 혼란으로 가는 것이다."[57] 라

---

51)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悌 故順可移於長 居可理 故治可移於官(孝經. 廣揚名章)

52) 故敬其父則子說 敬其兄則弟說 敬其君則臣說 敬一人而千萬人說 所敬者寡 而說者衆 此之謂要道也(孝經. 廣要道章)

53) 敎以孝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也, 敎以弟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也, 敎以臣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也(孝經. 廣至德章)

54) 池敎憲.(編著). 『韓國의 孝思想』, 民俗苑, 1997. pp.137~150.

55) 五刑. 中國 古代의 刑罰로 時代와 王朝에 따라 다르다. ①墨-刺字刑 ②義-코를 깍는 刑 ③刖-발의 筋肉을 끊어내는 刑 ④宮-男子는 거세하고 女子는 監房에 幽閉하는 刑 ⑤大辟-死刑에 처하는 것.

56) 五刑之屬三千 而辜莫大於不孝(孝經. 五刑章)

고 해서 不孝는 임금과 聖人을 능멸하는 것과 같은 大罪가 된다고 하여 孝道의 막중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孝를 德의 근본으로 삼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孝道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고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3. 『孟子』의 孝

1) 仁· 愛을 實踐하는 孝

孟子는 "仁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58], "仁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59] 고 하였다. 또한 "남을 사랑해도 親해지지 않거든 자신의 仁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60] 고 하였다. 그리고 "仁의 실제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요, 義의 실제는 형을 따르는 것이다."[61] 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맹자는 愛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仁과 함께 설명했다. 仁愛의 마음은 사람의 本性에서 나오고, 부모를 섬기는 孝誠은 仁愛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여 仁愛의 孝를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仁愛의 실천은 事親 즉, 孝에 있음을 알 수 있다.[62]

---

57) 要君者亡上 非聖人者亡法 非孝子亡親 此大亂之道也(孝經. 五刑章)

58) 仁者愛人(孟子. 離婁章句上,5)

59) 仁者無不愛也(孟子. 盡心章句上,7)

60) 愛人不親 反其仁(孟子. 離婁章句上, 4)

61)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孟子. 離婁章句上, 27)

62) 이상임(譯). 『儒家의 孝道 思想』, 에디터, 2002, p.302.

孟子는 “孝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어버이를 섬김이요.”[63] “孝子의 지극함은 어버이를 높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높임의 지극함은 천하로써 奉養함보다 더 큰 것이 없다.”[64] 고 하여 仁의 참된 모습은 부모 섬기는데서 볼 수 있으며, 孝의 시작은 어버이 섬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孟子는 “우리 집 늙은이를 늙은이로 존경하여 남의 집 늙은이에게로 확대하고, 우리 집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하여 남의 집 어린이에게로 사랑을 확대한다.”[65] 고 하였으며, “君子는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하여 사랑은 하되, 仁愛하지 않으며 백성에 대해서는 仁愛하되, 가까이 하지 않으며, 어버이를 親愛하고 나서 백성을 仁愛하고, 백성을 仁愛하고 나서 사람 아닌 사물을 사랑한다.”[66] 고 하였다. 이것은 仁愛의 孝는 가족 내부의 끈끈한 친밀감을 토대로 한 부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정신이 내 부모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내 부모에 머물지 않고, 이웃으로 확대되어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깊어지며, 만물의 사랑으로 확대되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孝의 본능적 특징을 그의 性善說로써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이 배우지 아니 하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타고난 良能때문이요, 생각하지 아니 하고서도 아는 바는 타고난 良知 때문이다. 어린 아이도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고 자라서는 자기 兄을 恭敬할 줄 안다. 어버이를 가까이 사랑하는 것이 仁이고, 나이 많은 이를 공경하는 것이 義이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 천하에 공통되는 것이다.”[67] 라고 하여 그의 性善說을 良

---

63) 事孰爲大 事親爲大(孟子. 離婁章句上.19)

64) 孝子之至 莫大乎尊親 尊親之至 莫大乎以天下養(孟子. 萬章句上, 4)

65) 老吾老, 以及仁之老, 幼吾幼, 以及仁之幼(孟子. 梁惠王章句上, 7)

66)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仁之而弗親, 親親而仁民, 人民而愛物(孟子. 盡心章句上, 45)

67)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也, 及其長也, 無不知己兄也, 親親仁也, 敬長義也 無也 達之天下也(孟子. 盡心章句上,15)

知와 良能의 개념으로써 설명하며 孝悌의 본능을 바로 이 良知와 良能의 행동적 증거로 들고 있다. 자발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윗사람을 따르는 즐거움에서 孝悌의 본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孝의 眞情性

高子가 『詩經』 小弁[68]의 시를 小人輩의 詩라고 하여 비난하였다. 평소에 부모를 원망함은 不孝의 소행으로 알고 있던 萬章이 이 詩評에 동감하고 맹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高子가 詩를 다루는 (해석) 것이 고루하구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越나라 사람이 활을 당겨서 그 사람을 쏠려고 할 때에 談笑로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越나라 사람과는 疏遠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형이 활을 당겨서 그 사람을 쏠려고 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형과는 친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小弁詩'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어버이를 親愛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어버이를 親愛하는 것은 仁이다."[69] 라고 하자, 그럼 『詩經』 凱風篇[70]의 詩에서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는 "'凱風'에서는 어버이의 허물이 작고 小弁에서는 어버이의 허물이 크다. 어버이의 허물이 큰 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버이와 더욱 疏遠해지는 것이요,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데도 원망한다면 이것은 어버이에게 자칫하면 성내게 되는 것이다. 더욱 소원해 지는 것은 不孝요, 자식이 자칫하여 성내게 되는 것도 不孝이다."[71] 라고 하여 '小弁'과 '凱

---

68) 高子는 齊나라 사람, 小弁은 小雅篇名, 父母를 怨望하는 詩.

69) 曰固哉 高叟(高子)之爲詩也 有人於此 越人關 弓而射之 則己談笑而道之無也 疏之也 其兄 關弓而射 之 則其垂涕泣而道之無也 戚之也 小弁之怨 親親也 親親仁也(孟子. 告者章句下, 3)

70) 『詩經』.「凱風篇」의 詩, 母親의 허물을 怨望치 않고 잘 섬긴 孝子에 대한 讚美詩.

風'은 다 孝子의 태도라 하였다.

이와 같이 諫爭이란 자식이 올바름을 분별하여 부모에게 아뢰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간쟁은 벗과의 責善과는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책선은 朋友의 道이니, 부자간의 책선함은 은혜를 해침이 큰 것이다."[72], "책선은 붕우지도(責善 朋友之道也)인데 어찌 朋友의 道로써 부모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부자지간에는 책선을 하지 않은 법이다."[73] 라고 하여 부자간의 윤리 중 기본이 되는 孝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진정한 怨慕의 孝가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3) 孝는 守身, 恭養의 精神

孟子는 "사람이 섬기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중대한가 하면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 가장 중대하다. 그리고 지키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중대한가 하면 몸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대하다. 자기의 몸을 잃지 않고서 자기의 어버이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마는 자기의 몸을 잃고서 자기의 어버이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다. 그 어느 것이나 섬기는 일이 아니겠는가마는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 섬기는 일 중에 가장 근본이요, 그 어느 것이나 지키는 일이 아니겠는가마는 자기 몸을 지키는 일이 지키는 일 중에 가장 근본이다."[74] 라고 하였다. 사람은 섬겨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중에 부모를

---

71)曰凱風 親之過小者也 小弁 親之過大者也 親之過大而不怨是 愈疏也 親之過少而怨是不可磯也 愈疏不孝也 不可磯是不孝也(孟子. 告者章句下, 3)

72) 責善 朋友之道也 父子冊善 賊恩之大者(孟子. 離婁章句下,30)

73) 父子之間 不責善 責善則離 離則不祥 莫大焉(孟子. 離婁章句上,18)

74) 孟子曰 事孰爲大 事親爲大 守孰爲大 守身爲大 不失其身而能事其親者 吾聞之矣 失其身而能事其親者 吾末之聞也 孰不爲事 事親 事之本也 孰不爲守 守身 守之本也(孟子. 離婁章句上, 19)

섬기는 것이 가장 중대한 것이며 禮儀를 지켜서 자기 몸을 불의에 빠지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섬겨야 하고 지켜야 할 대상 중에 그 근본은 事親과 守身이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일신의 행동을 조심하여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해야만 그 부모도 잘 섬길 수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부모를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맹자는 供養에 대하여 曾子의 예를 들어 事親之道를 설명하였다. "증자는 아버지 曾晳을 봉양함에 밥상에 술과 고기를 올려놓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한다. 술과 고기를 올렸다가 남기면은 '누구에게 줄까요? 하고 묻고 만약 '여유가 있느냐?' 라고 물으면 실제로 없더라도 반드시 있다고 대답한다."[75]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정신적 봉양 태도이다.

그러나 "曾子의 아들 曾元이 曾子를 奉養할 때는 밥상을 물릴 때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요?' 하고 묻지도 않았고, 또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76] 이것은 육체적 봉양에 그치는 경우이다. 그래서 맹자는 "心志를 봉양하는 曾子의 事親 방법이 제일이다."[77] 라고 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불의에 빠뜨리지 아니해야 부모를 섬기는 孝를 행할 수 있고 또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돼지로 사귐이요, 사랑하기만 하고 恭敬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78] 라고 말하여, 부모를 섬기는 孝를 행하는 데는 恭敬하는 마음으로 奉養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75) 曾子養曾晳 必有酒肉 將徹 必請所與 問有餘 必曰有(孟子. 離婁章句上, 19)

76) 曾元養曾子 必有酒肉 將徹 不請所與 問有餘 曰亡矣 將以復進也 此所謂養口體者也 若曾子則可謂養志也(孟子. 離婁章句上, 19)

77) 事親 若曾子者可也(孟子. 離婁章句上, 19)

78) 孟子曰 食而弗愛 豚交之也 愛而不敬 獸畜之也(孟子. 盡心章句上, 37)

4) 大孝

孟子는 “온 천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장차 자신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도 이것을 보기를 마치 草芥같이 여긴 것은 오직 舜 임금만이 그러하였다. 사람이 어버이에게 기쁨을 사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어버이에게 順하지 않으면 자식 노릇을 할 수 없다. 舜임금은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다하여 아버지 고수가 기뻐하기에 이르렀으니, 고수가 기뻐하기에 이르러서 온 천하도 이에 감화되어 부자간의 도덕이 정해졌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大孝라고 이른다.”[79] 고 하였다. 천하 사람이 悅服하는 천자가 되어 만인을 통치하는 것은 최고로 귀한 것이다. 그러나 舜은 이것을 초개같이 여기고 아버지, 고수[80]의 마음에 들도록 하여 환심을 사는 것을 가장 중대하게 여겼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人子의 자격을 갖추고 살아간다고 볼 수 없다는 舜이기에, 舜은 천자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孝, 즉 사람의 도리를 다하여 종국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감화되어 온 세상에 부자간의 도덕이 정립되었다. 이것을 맹자는 大孝라고 평가하였다.

또 맹자의 제자 도응이 물었다. 舜이 천자로 있고 고도[81]가 형관으로 있었을 때 瞽瞍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82] 이에 맹자는 ‘살인자를 의법 처단하는 것은 천하의 大法으로 舜도 이것을 피할 수 없어 집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舜은 천하를 내던지기를 헌 집

---

79) 孟子曰 天下大悅而將歸己 視天下悅而歸己 猶草芥也 惟舜爲然 不得乎親 不可以爲人 不順乎親 不可以爲子 舜 盡事親之道而瞽瞍底豫 瞽瞍底豫而天下化 瞽瞍底豫而 天下之爲父子者定 此之謂大孝 (孟子. 離婁章句上, 28)

80) 舜임금의 父, 頑惡하여 舜임금을 죽이려 하였음.

81) 舜의 忠臣.

82) 舜爲天子 皐陶爲士 瞽瞍殺人 則如之何(孟子. 離婁章句上,27)

신 버리듯이 하고 몰래 아버지를 업고 달아나 바닷가에 가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흔쾌히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을 것이다."[83] 라고 대답하였다. 천자의 지위를 내버리고 아버지, 고수와 함께 필시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 부자간의 정을 즐길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자식의 아버지에 대한 孝行이 富貴보다 중대함을 강조한 것이다.

효행자로서 유명한 曾子는 그의 아버지 曾晳이 생전에 남달리 양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양조를 먹지 않았는데 公孫丑가 '曾子는 무엇 때문에 맛있는 회와 불고기는 먹고 양조는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는 "회와 불고기는 다 같이 먹기 좋아하는 것이요, 양조는 혼자만이 먹기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어른의 이름은 부르기를 꺼려하고 성은 꺼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 성은 다 같이 쓰는 것이요 이름은 혼자만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84]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嗜好物은 그렇지 않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아하던 특별한 음식물은 자식으로서 이것을 대할 때 慕情이 일어나서 차마 먹지 못하는 것이 孝子의 眞情이라는 것이다.[85]

5) 不孝

章子라는 사람은 戰國時代 齊나라 사람으로 온 나라 사람이 그를 不孝子라고 평하였는데 맹자는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 禮貌를 갖추어 交遊하였다. 어떤 날 그의 제자인 公都子가 선생의 그 행동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孟子는 "세속에서 소위 不孝라고 하는 것은 다섯

83) 曰, 舜 視棄天下 猶棄敝蹝 竊負而逃 존遵海濱而處 終身訴然樂而忘天下(孟子. 盡心章句上, 35)

84) 曰, 膾炙 所同也 羊棗 所獨也 諱名不諱姓 姓, 所同也 名, 所獨也(孟子. 盡心章句下, 36)

85) 成百曉(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硏究會, 1999. pp.79~81

가지다. 四肢를 게을리 하여 부모의 奉養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첫째의 不孝요, 장기와 바둑을 두며 음주를 좋아하여 부모의 奉養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둘째의 不孝요, 財貨를 좋아하며 처자에게만 빠져서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셋째의 不孝요, 耳目의 욕구를 만족시키느라고 부모를 辱되게 하는 것이 넷째의 不孝요, 용맹을 좋아하여 자칫하면 싸우고 성내어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째의 不孝이다. 章子는 이 중에 하나라도 있는가?"[86] 라고 말했다.

맹자는 禮制化된 五個條項의 不孝를 열거하였으니 이 조항들의 不孝는 모두 자식으로서 자기의 탐욕에 빠져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章子는 이러한 五個條項의 不孝에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맹자는 "不孝가 세 가지 있으니 그 중에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87] 라고 하였다. 不孝의 세 가지는, 어버이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年老하여도 벼슬을 하지 않는 것, 無子息으로 先祖의 祭祀를 끊게 되는 것이다. 이 중에 자손이 없어서 先祖의 祭祀를 끊게 되는 것이 가장 큰 不孝라 하였다.[88]

6) 父母가 돌아가신 後의 孝行精神

孟子는 "살아 있을 때에 奉養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것이 못되고, 다만 돌아갔을 때 葬送 하는 것만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86) 世俗所謂不孝者五 惰其四肢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好飮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財貨 私處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 五不孝也 章 子有一於乎也(孟子. 離婁章句下,30)

87) 不孝有三 無爲爲大(孟子. 離婁章句上, 26)

88) 柳正基 監修. 新譯講讀『四書三經』, 孟子篇, 明文堂, 1994. pp.129~131

”[89] 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를 생존시에 奉養함은 자손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므로 이것을 가장 큰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사후의 喪事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자손의 도리임을 맹자는 강조한 것이다. 이 것은 孝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喪禮와 祭禮의 중대성을 말한 것이니, 儒敎에서는 葬祭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는가를 알 수 있다.[90]

齊 宣王이 喪禮의 수정을 희망했다. 즉 전통적 禮制의 하나인 喪禮의 삼년상, 말하자면 부모가 돌아간 뒤 삼년간 일체의 사회생활에서 격리되어 廬幕에 들어 앉아 특수한 양식으로 생활하면서 哀痛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 喪禮의 기간을 단축하여 간소화하려 했다는 말을 들은 公孫丑가 ‘일년 喪이라도 行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맹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맹자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의 팔을 비트는 것을, 자네가 좀 천천히 해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역시 그에게 孝道와 恭敬을 가르칠 뿐이다.”[91] 라고 하며 크게 힐난하였다. 즉, 형의 팔을 비트는 不敬한 동생에게 좀 천천히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술법이니 형의 팔을 비트는 동생은 敬의 정신이 전혀 없고, 부모의 삼년상을 단축하자는 사람은 孝行의 정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의 팔을 비트는 동생에게는 형을 존경하는 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喪期를 단축하려는 사람에게는 孝道하는 정신을 길러 주어야 함을 맹자는 강조하였다.

---

89) 養生者 不足以當大事 惟送死 可以當大事(孟子. 離婁章句下, 13)

90) 柳正基 監修. 新譯講讀『四書三經』, 孟子篇, 明文堂, 1994. pp204~205

91) 是猶或 紾其兄之臂 子謂之姑徐徐云爾 亦敎之孝弟而已矣(孟子. 盡心章句上, 39)

4. 『小學』의 孝

1) 父母에 대한 日常的인 禮節

『小學』은 "남녀로서 아직 관 쓰지 않고 비녀 꽂지 않는 자는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머리 빗고, 검은 비단으로 머리를 싸매고, 다팔머리 위의 먼지를 털고, 머리털을 묶어서 뿔 모양을 만들고, 향낭을 매고, 향기 나는 물건을 찬다. 먼동이 틀 때 아침 문안을 드린다."[92] 라고 하였다. 지금은 이 같은 禮節이 모두 없어졌지만 아직도 완고한 집에서는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 사흘 동안 시부모께 問安드리게 한다. 시대가 달라져서 그와 같은 禮節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다고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살피는 것 등을 행하는 것이 인정이요 도리라고 본다.

"부모나 시부모가 장차 일어나 앉으려고 하시면 깔고 앉을 자리를 받들어 들고 '어느 쪽을 향하여 자리를 깔까요?'하고 묻는다. 장차 누우려고 하시면 나이 많은 자는 깔고 누울 자리를 받들어 들고, '발은 어느 쪽에 두실 건가요?' 하고 물으며, 나이 적은 자는 침상을 받들고 옆에 뫼시어 앉는다. 일어나시면 모시는 자는 안석을 들고 자리와 대자리를 거둔다. 이불을 묶어서 달고, 베개는 상자에 넣으며, 대자리는 걷어서 싸서 둔다. 부모나 시부모의 옷과 이불과 대자리와 베개와 안석은 일정한 곳에 두어서 함부로 옮기지 않으며, 지팡이와 신은 소중하게 간수하여 감히 몸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93] 이것은 부모의 起居를 편안하게 해드릴 것과

---

92) 男女未冠笄者 鷄初鳴 咸盥漱 櫛縰拂髦 總角衿纓 皆佩容臭 昧爽而朝(小學. 明倫篇, 1章)

93) 父母舅姑將坐 奉席請何鄉 將衽 長者 奉席請何趾 小者 執牀與坐 御者 擧几 斂席與簟 縣衾篋枕

부모의 물건을 소중히 다룰 것을 말하고 있다.

또 부모, 시부모를 섬기는 일상적인 예절에 대해서 세세히 말하고 있다. “부모나 시부모가 계신 곳에 있어서, 명령하시는 일이 있으면 빨리 응하고 나서 공손히 대답하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며, 이리 저리로 돌아가는 동작을 삼가고 조심하며, 마루에 오르고 내리며, 방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는 몸을 굽히고 펴는 것을 법도에 맞도록 해야 한다.”[94] 라고 하였다.

『小學』은 “대체로 사람의 자식 된 자의 예절은 겨울에 따듯하게 하고 여름에 서늘하게 하며, 밤에 잠자리를 정하고 새벽에 안부를 살피며, 나갈 때는 반드시 告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안색을 살피며, 노는 곳에 반드시 일정함을 두며, 익히는 바를 반드시 힘써야 하며, 항상 말할 때 늙었다고 일컫지 말아야 한다.”[95] 고 하여 자식 된 자의 일상적인 禮節을 논하고 있다.

2) 父母 앞에서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小學』은 “孝子의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화한 기운이 있고, 온화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쁜 빛이 있고, 기쁜 빛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순한 모습이 있거니와, 孝子는 玉을 잡고 있는 것 같이 하고, 가득한 것을 받들고 있는 것같이 하여, 조심하기를 한결같이 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같이 하고, 장차 잃을 것같이 하니, 엄숙하고 위엄있고 엄정하고 근엄함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96] 라고 하였다. 이것

斂 簟而襡之 父母舅姑之衣衾簟枕几 不傳 杖履 祇敬之(明倫篇, 3章)

94) 在父母舅姑之所 有命之 應唯敬對 進退周旋 愼齊 升降出入 揖遊(小學. 明倫篇, 4章)

95) 曲禮 曰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淸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所遊 必有常 所習 必有業 恒言 不稱老小學. (明倫篇, 5章)

은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온화한 기운이 서려 있어야 한다. 온화한 기운이 있으면 자연히 기뻐하는 빛이 나타나게 되고, 기뻐하는 빛이 있으면 태도까지 온순해지게 마련이여서 항상 부모님 앞에서는 온화한 얼굴로 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 부모가 화를 내실 때 마음에 반발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얼굴에 원망하는 빛을 나타내지 않고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부모에게 슬프고 불쌍한 생각을 지니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최상의 孝子요, 부모가 화를 내실 때 마음에 반발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얼굴에 원망하는 빛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 다음 孝子요, 부모가 화를 내실 때 마음에 반발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얼굴에 원망하는 빛을 나타내는 것은 不孝다."[97]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계시거든 멀리 떠나 놀지 말아야 하며, 놀되 반드시 갈 곳을 말씀드려야 한다."[98] 고 하였고, "아버지가 命하여 부르시거든 곧 '네'하며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손에 일을 잡았으면 던지고, 입에 밥이 있으면 토하고, 달려가야지 천천히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늙으셨으면, 밖에 나가서 가는 곳을 바꾸지 않으며, 돌아옴에 때를 지나치지 말며, 부모가 병드셨으면 안색과 용모를 펴지 아니 하는 것, 이것이 孝子의 대략의 禮節이다."[99] 라고 하였으며, "孝子가 부모를 奉養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여 어기지 아니하며, 부드러운 말로 부모의 귀를 즐겁게 해 드리고, 온화한 낯빛과 태도로 부모의 눈을 즐겁게 해 드리며, 부모의 잠자리와 거처하시는

96) 禮記 曰 孝子之有深愛者 必有和氣 有和氣者 必有愉色者 必有婉容 孝子 如執玉 如奉盈 洞洞屬速然 如弗勝 如將失之 嚴威儼格 非所以事親也(小學. 明倫篇, 6章)

97) 故 曰 父母怒之 不作於意 不見於色 深受其罪 使可哀憐 上也 父母怒之 不作於意 不見於色 其次也 父母怒之 作於意 見於色 下也(小學. 稽古篇, 16章)

98) 孔子 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小學. 明倫篇, 8章)

99) 禮記 曰 父命呼 唯而不諾 手執業則投之 食在口則吐之 走而不趨 親老 出不易方 復不過時 親齊色 容不盛 此孝子之疏節也(小學. 明倫篇, 15章)

곳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부모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정성을 다하여 奉養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랑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랑해야 하고, 부모가 恭敬하시는 것을 따라서 공경해야 한다. 심지어는 부모가 기르시는 개나 말까지도 사랑하고 귀여워해야 하거늘, 더구나 부모가 사랑하시고 공경하시는 사람들을 어찌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00] 라고 하였다.

또 "부모가 병환중이면 자식은 머리를 빗거나 몸치장을 하지 않으며, 걸을 때에도 진중하게 하고, 말도 헛되게 하지 않고, 악기와 음악을 멀리하고, 山海珍味를 입에 대지 않으며, 술을 취하게 마시지 않으며, 크게 웃지 않으며, 심하게 성을 내고 소리 질러 남을 욕하지 않는다. 부모가 쾌차하면 다시 평상시 같이 행동한다."[101] 라고 하였다.

3) 어른에 대한 順從

『小學』은 "아들과 며느리로서 孝道하고 恭敬하는 자는 부모와 시부모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는다. 웃어른이 만약 음식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하면, 비록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반드시 조금 먹어보고 난 다음에 어른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또 옷을 내려주면서 입으라고 하면 비록 그것이 맘에 안 들더라도 반드시 일단 입어보고 난 다음에 어른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고 하였으며, "아들이나 며느리는 사사로이 재물이나 기물을 소유하거나 저축하지 않는다. 또 집안의 재물이나 기물들을 사사로이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 주지 않는다."[102]

---

100) 曾子 曰 孝子之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 樂其耳目 安其寢處 以其飮食 忠養之 是故 父母之所愛 亦 愛之 父母之所敬 亦敬之 至於犬馬 盡聯 而況於人乎(小學. 明倫篇, 18章)

101) 父母有疾 冠者不櫛 行不翔 言不惰 琴瑟不御 食肉不至變味 飮酒不至變貌 笑不至矧 怒不至詈 疾止復故(小學. 明倫篇, 24章)

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릇 자식이 부모의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기록하여 몸에 지니고 때때로 살펴보아서 속히 실행하며, 일을 마치면 복명해야 한다. 혹시 명령하신 일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일의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을 갖추어 여쭈어서 부모의 허락을 얻는 뒤에 고쳐야 한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진실로 사리에 크게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면 마땅히 내 뜻을 굽혀서 부모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부모의 명령이 그르다 하여 곧장 내 뜻대로 행한다면 비록 내 생각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順從치 않는 자식이 됨을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103] 라고 하였다.

4) 父母와 心情的 交感과 祭祀

『小學』은 “자식은 항상 부모님의 뜻이나 감정을 소리 없는 가운데 깨닫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알아차려야 한다.”[104] 고 하였다. 즉 以心傳心으로 부모를 받들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적 교감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친이 돌아가신 뒤에 생전에 愛讀하던 책을 자식이 펴놓고 읽지 못하는 것은 부친의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모친이 돌아가신 뒤에 차마 모친이 쓰던 그릇을 쓰지 못하는 것은 모친의 입김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105] 라고 하였다. 이와 같

---

102) 子婦 無私貨 無私蓄 無私器 不敢私仮 不敢私與(小學. 明倫篇, 12章)

103) 凡子受父母之命 必亦記而佩之 時省而速行之 事畢則返命焉 惑所命 有不可行者則和色柔聲 具是非利害而白之 待父母之許然後 改之 若不許 苟於事 無大害者 亦當曲從 若以父母之命 爲非而直行己志 雖所執 皆是 猶爲不順之子 況未必是乎)(小學. 嘉言篇, 16章)

104) 聽於無聲 視於無形(小學. 明倫篇, 20章)

105) 父沒而不能讀父之書 手澤存焉爾 母沒而杯圈 不能飮焉 口澤之氣存焉爾(小學. 明倫篇, 22章)

은 심정적 교감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도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던 것을 사랑하고 부모가 恭敬하던 것을 恭敬해야 한다. 부모가 사랑하던 개나 말까지 자식이 좇아 사랑해야 하거늘 하물며 부모가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서랴."[106] 라고 하여, 부모 생전에 종의 몸에서 난 자식이나 妾의 몸에서 난 庶子, 庶孫이 있어 이들을 부모가 사랑했다면, 嫡子인 나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들을 終身토록 한결같이 존중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孝誠은 부모 생시에 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돌아가신 후에도 孝子는 부모의 신령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祭祀를 잘 모셔야 한다고 하였다. 즉 "祭祀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奉行해야 한다. 이와 같이 內外의 祭官이 다 참가해야 祭祀의 격식이 갖추어지고, 祭官이 갖추어지면 祭物도 구비하게 된다."[107] 고 하였고, "자식의 어버이 대한 사랑이 극진하면 신령이 살아있게 되고 정성이 극진하면 신령이 顯顯한다. 이렇듯이 자식 마음속에 신령이 살아서 나타나니 어찌 祭祀를 敬虔하게 모시지 않을 수 있으랴"[108] 라고 하였다. 이것은 祭祀는 형식적으로 지내면 안 된다는 말이다. 祭祀는 先祖의 신령과 만나는 엄숙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孝心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살아 계신 부모를 대하듯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다.

또 "君子는 아무리 가난해도 祭器를 팔지 않으며, 아무리 춥더라도 祭服을 입지 않는다. 또 집을 짓기 위해 선산의 수목을 베지 않는다."[109] 라고 하였으며, "大夫는 祭器를 남에게서 빌리지 않으며, 祭器를 다 갖추기 전에는 잔치용 器物들을 마련하지 않는다."[110] 라고 하였다. 생존시에

---

106) 是故 父母之所愛 亦愛之 父母之所敬 亦敬之 至於犬馬 盡聯 而況於人乎(小學. 明倫篇, 25章)

107) 祭統 曰 夫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宮備則具備(小學. 明倫篇, 29章)

108) 致愛則存 致慤則著 著存 不忘乎心 夫安得不敬乎(小學. 明倫篇, 31章)

109) 曲禮 曰 君子雖貧 不粥祭器 雖寒 不衣祭服 爲官室 不斬於丘木(小學. 明倫篇, 32章)

부모의 器物을 아끼고 供養을 잘 하듯이 돌아가신 후에 신령으로 계신 부모를 생시나 다름없이 모셔야 한다. 부모와 조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祭器를 팔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祭服을 입지 않으며, 집을 짓기 위하여 부모나 祖上의 山所 근처에 있는 나무는 산소를 위하여 가꾸는 것이므로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는다. 이것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의 신령과 영적 交通路인 祭祀에 사용하는 祭器들과 부모님이 계시는 산소에 있는 나무 하나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 사후의 孝道를 강조한 말일 것이다.[111]

5) 自重 自愛와 立身揚名

『小學』은 "나의 신체나 毛髮,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함이 孝道의 시작이고, 그 다음으로 사회에 나가 하늘의 道理를 좇아 功을 세우고, 이름을 후세에까지 宣揚하여 부모의 영광되게 함이 孝道의 마지막 완성이다."[112] 라고 하였으며, "우리들의 몸은 부모가 물려주신 형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동함에 있어서 감히 恭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는가? 평소 집에서 하는 행동이 정중하지 못하면 不孝를 저지르는 것이고, 친구와 사이에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不孝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결국 부모에게 재앙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 감히 행동을 조심하고 恭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13]

---

110) 王制 曰 祭器 不仮 祭器未成 不造然器(小學. 明倫篇, 33章)

111) 李基奭(譯). 『小學』, 弘信文化社, 1994, pp.60~63.

112)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小學. 明倫篇, 34章)

113) 曾子曰 身也者 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居處不莊 非孝也 朋友有信 非孝也 不遂災 及其親 敢不敬乎(小學. 明倫篇, 38章.)

『小學』은 "부모가 살아 계시거든 목숨을 바치는 일을 벗에게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114] 고 하였다. 나의 몸과 생명은 우리 집안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自重 自愛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를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래 있어도 난을 일으키지 않고 추한자들과 다투지 않는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멸망을 초래하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난을 일으키면 형벌에 걸리고, 동료들과 다투면 칼부림을 하게 된다. 이 세가지 잘못을 제거하지 못하면 비록 부모에게 소, 양, 돼지고기 반찬으로 매일 奉養한다 해도 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화를 미치게 함으로써 결국 不孝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115] 라고 하였다.

또 "부모가 비록 돌아가셨더라도 장차 착한 일을 함에는 부모에게 착한 이름을 끼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결행하고, 장차 착하지 못한 일을 함에는 부모에게 부끄럽고 욕됨을 끼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결행하지 말아야 한다."[116]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에게 치욕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실행할 것과 실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중히 하라는 것일 것이다.

6) 忠諫言과 不孝

『小學』은 "부모가 사랑해 주시거든 기뻐하여 잊지 말아야 하고, 부

---

114) 曲禮 曰 父母在 不許友以死(小學. 明倫篇, 9章)

115)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居上而驕則亡 爲下易亂則刑 在醜而爭則兵 三者 不除 雖日用 三牲之養 猶爲不孝也(小學. 明倫篇, 36.章)

116) 內則 曰 父母雖沒 將爲善 思貽父母令名 必果 將爲不善 思貽父母羞辱 必不果 (小學. 明倫篇, 27章)

모가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가 잘못하심이 있거든 諫하되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117] 하였고, 또 “부모가 잘못하심이 있거든, 氣를 낮추고, 낯빛을 온화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로써 간할 것이니, 간함이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공경함을 일으키고 孝心을 일으켜서, 기뻐하시거든 다시 간해야 한다.”[118] 고 하였다.

또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세 번 간하여 부모가 듣지 아니하시거든, 부르짖어 울면서 따라야 한다.”[119]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의 간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수용하지 않으셔서, 부모가 鄕黨과 周廬에 죄를 지으시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식이 간절히 되풀이하여 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부모가 끝내 간함을 듣지 않으시드라도, 감히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恭敬하는 마음과 孝道하는 마음을 일으켜 울면서 부모의 행동에 따라야 한다. 임금의 경우는 세 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신하가 떠났지만, 부모의 경우는 여러 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울면서 부모의 뜻에 따랐다고 한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은 天倫의 肉親愛로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또한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孝道이기 때문인 것이다.[120]

『小學』은 “부모가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곧 부모의 생명과 육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어받은 것 중에 이 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또 부모가 손수 나를 사랑으로 키우고 교육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더 없이 두텁고 크다. 그런데도 만약에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悖德이라고 하고, 또 자기 부모를 恭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그것을 悖禮라고 한다.”[121] 라고 하

---

117) 曾子 曰 父母愛之 喜而不忘 父母惡之 懼而無怨 父母有過 諫而不逆(小學. 明倫篇, 21章)

118) 內則 曰 父母有過 下氣怡色 柔聲以諫 諫若不入 起敬起孝 說則復諫(小學. 明倫篇, 27章)

119) 曲禮 曰 子之事親也 三諫易不聽 則號泣隨之(小學. 明倫篇, 23章)

120) 朴一峰. 『小學』,圖書出版 育文社,2003. pp.51~54.

였다. 이 말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의 이치인 人倫의 道德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자기 부모를 恭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恭敬하는 것을 禮節에도 어긋난 不孝라고 말한 것이다.

121)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是故 不愛期親 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悖禮(小學. 明倫篇, 35章)

Ⅲ. 儒敎的 孝의 本質과 問題

1. 孝의 本質과 價値

儒敎에서는 仁을 모든 德의 근본이라 하였고, 인을 말할 때 孝를 함께 말한 것은 孝가 모든 德의 시발점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였다. 그리하여 儒敎에서는 모든 가르침을 孝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孝가 모든 도덕의 기점이요 모든 도덕은 孝의 확충임을 의미한다. 孝는 도덕의 종점도 아니요 모든 도덕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무한히 확충할 수 있는 本源이요 起點이다.[122]

孝의 실천적 내용을 본질적 가치 면에서 분석해 보면 사랑과 恭敬하는 마음, 그리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恩惠를 잊지 않고 그 恩惠에 감동하여 感謝하고 報答하는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123]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이다. "부모와 자식간 道理는 天性이다"[124] 라고 하였다. 어떠한 인간 관계보다도 우선하고 귀중하며 친밀한 天倫의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은 天性과 天理로 서로 사랑하게 마련이며, 그 사랑이 곧 孝인 것이다.

이와 같은 孝의 가치에는 사랑과 함께 恭敬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공자는 孝에 대하여 "지금의 孝라는 것은 잘 供養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짐승에게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恭敬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125] 라고 하였다. 맹자 역시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

122) 茁善均. 「孝와 作用과 實踐」論文集, 淸州大學, 1976, p.47.

123) 張基槿. 『儒敎와 道德政治』, 圖書出版 서원,1999, p.151.

124) 父子之道 天性也(孝經. 父母生績章)

돼지로 사귐이요, 사랑하기만 하고 恭敬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126] 라고 하여 부모에 대한 孝行에 있어서 恭敬하는 마음이 결여된다면 孝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127] 이는 恭敬의 정신이 孝의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孝의 본질적 가치로 守身과 報恩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孝道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공자는 "내 몸은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니, 자기 몸을 傷하게 하지 않는 것이 孝道의 시작이다."[128] 라고 하였으며, 또 "부모가 완전한 형상으로 낳아주신 몸을 자식은 언젠가 완전한 형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孝라고 할 수가 있다."[129] 고 하였다. 이것은 나의 생명은 직접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모를 사랑하고 恭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孝의 본질적 가치로, 부모 恩惠에 대한 感謝와 報答하는 마음을 들 수 있다. "孝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報恩의 행동이다. 그러나 부모의 慈愛는 원천적인 것이여서 시들 줄을 모른다."[130] 이 시들 줄 모르는 부모의 慈愛에 대해 시들 줄 모르는 報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보답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慈愛와 恩惠를 깊이 깨닫는데서 참다운 孝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몸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그 은혜 비할 데 없이 큰 것이요, 그 感恩의 정을 깊이 느낀다면 孝道를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感謝와 報恩의 실천이 진정한 孝의 價

---

125) 子曰 今之孝子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論語. 爲政篇, 7)

126) 孟子曰 食而弗愛 豚交之也 愛而不敬 獸畜之也(孟子. 盡心章句上, 37)

127) 池敎憲,外6人, 『傳統倫理의 現代的 照明』,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9, p.94

128)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孝經. 開宗明義章)

129) 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可謂孝矣(禮記. 祭義篇)

130) 李乙浩.「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忠孝思想」, 國民倫理敎育세미나,油印物 1977. p.14.

値라 할 수 있다.[131]

2. 經典에 나타난 孝의 通念

1) 天道 · 地德 · 人行의 敎化

孝란 하늘의 근간이며, 땅의 뜻이며, 백성들의 행동 지침이다. “무릇 孝란 변치 않는 하늘의 진리요, 땅의 올바른 이치이며 백성의 바른 행실이다. 부모와 자식간 관계의 道는 天性이다.” 라고 하였다. 孝道는 天地人 삼재를 관통하는 하나의 도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천지의 道를 본받아 부모에게 孝順해야 한다는 것이다.

2) 人類愛(仁)

孝悌가 仁을 이룩하는 근본이다. “仁의 실제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요, 義의 실제는 兄을 따르는 것이다. 君子는 근본에 힘을 써야 한다. 근본이 서야 道가 생긴다. 부모에 대한 孝道와 兄長에 대한 恭敬이 바로 仁을 이룩하는 근본이다.” 이와 같이 孝는 부모를 사랑함이고, 悌는 형제간의 友愛이다. 모든 도덕과 행실이 孝悌에서 시작하고, 그 孝悌가 仁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孝는 縱的 肉親愛이고, 悌는 橫的 肉親愛이다. 부모에 대한 孝道와 肉親愛를 확대하여 人間愛, 兄弟愛, 人類愛, 자연만물에 대한 사랑으로 뻗어가야 한다. 따라서 孝는 곧 인류애, 곧 仁

---

131) 安秉煜. 『現代人의 忠孝思想』, 大韓敎育 文化硏究所, 1977, p.44.

의 바탕이 된다.

3) 忠君愛國의 정신

孝로써 지성껏 임금을 섬기는 것이 곧 忠이다. 사회에 나아가 道를 지키고 행하여 功을 세우고 후세에 까지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함이 孝道의 완성이다. 孝子의 지극함은 어버이를 높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높임의 지극함은 天下로써 奉養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天下의 모든 나라들의 임금을 모두 恭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君子가 부모를 孝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임금에게 옮겨 충성을 다할 수 있으며, 형을 恭敬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른에게 옮겨 順從할 수 있으며, 집에서 집안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관직에 옮겨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孝子 가운데서 충신이 나오고, 孝道를 실천하는 孝子라야 忠君愛國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출세도 하고, 나라에 공을 세워 자신도 영광을 누리고, 부모와 가문도 빛나게 할 수 있다.

4) 順從의 德

"무릇 자식이 부모의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기록하여 몸에 지니고 때때로 살펴보아서 속히 실행하며, 일을 마치면 復命해야 한다. 혹시 명령하신 일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일의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을 갖추어 여쭈어서 부모의 허락을 얻는 뒤에 고쳐야 한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진실로

사리에 크게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면 마땅히 내 뜻을 굽혀서 부모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부모의 명령이 그르다 하여 곧장 내 뜻대로 행한다면 비록 내 생각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順從치 않는 자식이 됨을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통상 孝와 順을 함께 일컬어 孝順 이라고 한다. 그러나 順은 반드시 도리와 합치되어야 하고,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孝順이라 할 수 있다.

5) 奉養과 恭敬

오늘날 孝란 물질적으로 奉養하는 것만을 일컫는데, 이는 개나 말(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恭敬치 않으면 개·말과 무슨 구별이 있는가? 일이 있으면 젊은이가 수고를 하고, 술이나 음식이 있으면 어른께 올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孝라 할 수 있겠느냐? 敬順 하여 부모를 평안케 하는 것이 孝이다.” 고 하였고,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돼지로 사귐이요, 사랑하기만 하고 恭敬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친을 心志로 奉養 恭敬하고 順從하여 안락케 하는 것이 바로 孝라는 것이다.

6) 禮와 崇祖의 情神

孝는 禮의 시작이다. “살아 계시면 禮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禮로 葬事지내고, 禮로 祭祀지내는 것이다. 孝子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그 恭敬하는 마음을 다하고, 奉養함에 있어서는 부모가 즐거움을 다하도록 하고, 병이 났을 때는 근심을 다하도록 하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다하도록 하고, 祭祀를 모실 때는 엄숙한 마음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사랑과 恭敬으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슬픔을 다하여 섬기니 이로써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의 근본을 다 행하는 것이며, 살아 계실 때와 돌아가신 뒤의 禮儀가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孝子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이 끝났다 할 것이다.” 공자는 宗廟에 공경을 다 하는 것은 어버이를 잊지 않으려는 것이고, 몸을 닦고 신중히 하는 것은 先祖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에서라고 하였다.

7) 父母님의 뜻 繼承

孝는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며, 부모의 사업을 잘 준행하는 것이다. “무릇 孝는 先祖나 부친의 뜻과 이상을 계승하고 아울러 선조나 부친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자식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3년 동안 아버지의 뜻을 고치지 말아야 孝라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른바 孝란 바로 先親이 지향하던 바를 잘 계승하여, 선친이 하던 일의 德行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祖上의 뜻을 계승하는 것을 孝라 한다.

8) 自重, 自愛와 守身

내 몸은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니,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孝道의 시작이라고 한다. 曾子는 병이 있어 죽음에 이르러 그 제자들에게 “내 발을 펴보고, 내 손을 펴보아라, ‘詩經에 戰戰兢兢하여 깊은 못가에 다 다른 듯 엷은 얼음을 밟듯하라’ 했듯이 조심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나

의 걱정을 면하게 되었구나”라고 말하였듯이 부모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孝이다. 부모가 완전한 형상으로 낳아주신 몸을 자식은 언젠가 완전한 형상으로 땅에 되돌려 주어야 孝라고 할 수가 있다. “한마디 말을 함에 있어서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되므로 타인을 욕하는 일이 없어야 타인에게서 원망하는 말이 내 몸에 돌아오는 일이 없으며, 내 몸에 치욕이 미치는 일이 없으므로, 어버이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래야 孝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自重, 自愛하여 五體를 손상하는 일이 없고,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孝道라는 것이다.

9) 悅好의 의미

“효자의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화한 기운이 있고, 온화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쁜 빛이 있고, 기쁜 빛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순한 모습이 있거니와, 孝子는 玉을 잡고 있는 것 같이 하고, 가득한 것을 받들고 있는 것같이 하여, 조심하기를 한결같이 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같이 하고, 장차 잃을 것같이 하니, 엄숙하고 위엄있고 엄정하고 근엄함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고 하였다. 자기를 낳고 양육해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정성껏 供養해 올리는 것은 기본적인 孝道라는 것이다. 또한 부모를 모실 때는 부모의 안색을 살피고, 자기의 안색을 즐거운 표정으로 하고, 孝順하여야 자식의 도리이고 悅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孝는 屈從이 아님

“아버지에게 諫言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몸이 불의에 빠져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식은 아버지의 불의를 간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하는 임금의 불의를 다투어 간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으니 불의를 당했을 때 다투어 간언하지 않으면 안 되니, 아버지의 명령만 따른다고 어찌 孝道라고 할 수 있겠느냐? 부모가 사랑해 주시거든 기뻐하여 잊지 말아야 하고, 부모가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가 잘못하심이 있거든 간하되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잘못하심이 있거든, 氣을 낮추고, 낯빛을 온화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로써 간할 것이니, 간함이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恭敬함을 일으키고 孝心을 일으켜서, 기뻐하시거든 다시 간해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간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32]

3. 孝思想의 問題點

儒敎의 孝思想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준데 대한 恩功에 보답하는 자식의 도리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정신문화의 중심적 價値體系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儒敎經典에 나타난 傳統的 孝思想은 당시 사회적 배경과 가치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였으므로 오늘날 社會構造와 生活樣式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교육을 받는 젊은이들 사이에는 孝의 기본정신 그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傳統的 孝槪念, 또는 규범 중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 즉 달라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보편화하

132) 張基勤. 『道德倫理 孝道의 原理와 實踐』, 펴낸곳:主流·一念, 1996. p.109.

기에 이르렀다.

儒敎的 孝思想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과 그 특징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도덕적 생활에서 드러난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133]

1) 義務論的 倫理로서의 當爲性만을 强調함.

傳統的 孝思想은 인간의 양심적인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규범화된 도덕률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각 개인에 있어서 거역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 된다. 따라서 도덕 行爲者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이러한 의무는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모순을 지닐 수도 있다.

2) 家父長的 社會構造의 道德秩序 特徵을 지니고 있음.

家父長的 社會構造의 도덕질서 規範化에서의 인간은 오직 家父長의 의지에 귀속되는 생활만을 해야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절대 권력자인 天子에게 귀속되는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것은 각 개인의 합리적인 인식과 자유로운 행동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힘의 우세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낳게 되는 폐단이 있다.

3) 階級主義的 位階秩序를 强要함.

---

133) 李敦熙. 「敬老 孝親의 敎育」,서울시 敎育委員會, 1985. pp.50~54.

물론 부자간에 位階秩序가 존중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논리도 정당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大孝와 小孝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실현된다고 할 때 사회의 階級的 질서도 부자관계처럼 지배와 복종을 강요케 함으로서 사회적 신분의 우열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폐단을 낳게 된다.

4) 自己 中心的 自我 擴張的 倫理로서의 特徵을 가지고 있음.

儒敎的 인간의 도덕질서는 부자지간에 느켜지는 감정과 거기에서 성립되는 규범을 일반화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중심적 도덕성을 그 기본으로 삼는 폐단을 낳게 된다. 따라서 나의 이기적 세계를 초월한 객관적인 보편적 질서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도덕성은 傳統 孝思想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충되는 傳統的 孝槪念은 오늘의 사회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5) 平等主義, 個人主義 思想과 相衝되므로 많은 葛藤의 要因이 되고 있음.

平等主義는 民主主義의 기본 정신이며 이상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보편적 倫理規範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존중하는 이 平等主義 에서는 位階序列的인 上下垂直關係를 강조하는 敬老思想의 윤리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주의는 개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주체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같은 배려를 해야 하는 계약과 신뢰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인권존중의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전통적 孝槪念에서는

개인주의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134]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價値觀 속에는 傳統的 倫理規範과 현대적인 가치가 피차 갈등작용을 일으키며 공존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傳統的, 垂直的 敬老思想이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와는 相反되는 平等主義, 個人主義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현대인이 당면하게 되는 고민은 서로 상충되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에서 오는 혼돈을 슬기롭게 정리해 가면서, 孝規範의 장점을 발굴 개발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현대적 도덕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135]

---

134) 高永復.「傳統社會의 孝槪念과 現實的 課題」,『現代社會와 老人福祉』, 峨山社會福祉財團,1983, p.57.

135) 朴在侃.「傳統的 孝思想과 現代的 意義」,『傳統倫理의 現代的 照明』,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9. pp.110.

Ⅳ. 結　論

전통적 孝思想 중에는 지배와 복종을 전제로 하는 階級的 秩序 槪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平等主義, 個人主義 價値指向性을 띠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孝가 새 시대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 환언해서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相衝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부담감과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 또는 자생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의 것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孝의 現代的 槪念 定立을 서둘러야 한다.

孝의 원형이나 孝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孝의 構造的 槪念은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孝와 현대사회를 연결시키지 못한 채 가정윤리로서의 孝만이 傳乘되어 社會的 孝는 뒤로 물러나고, 가정에서의 孝만이 남아 있을 때 들어온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는 인권존중의 바람을 타고 夫婦關係, 友人關係, 長幼關係에 문화해체의 선풍을 일으켰다.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는 사회 속에서 수평관계로 달려가지만 가정 안에서는 구시대적인 수직관계가 뿌리깊어 新舊의 價値觀이 二元的으로 공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치관의 갈등은 成人層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나 매사에 타산적이 되어 버리고, 새 시대의 孝는 점차 혼미 속으로 빠

져 들어간다. 따라서 문화해체에 대한 재조직을 서둘러, 강압적이고 規範的인 것보다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價値 合理的인 현대사회에서의 바람직한 孝思想을 정립하여 할 것이다.

2. 낡은 文化는 積極 解體하고 時代에 맞게 再組織해야 한다.

孝의 思想 定理을 위하여 현사회는 과거의 어떤 부분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먼저 키워 나가야 할 孝의 원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즉 父子 慈孝에서 이루어지는 부자간의 인간관계는 東西古今에 불변하는 진리이며 서양인들도 부정하지 않는 인간의 도리이다. 여기에 따르는 실천요소가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서양인은 성장한 뒤에 부모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孝만을 찾기로 하여 늙어도 奉養을 기대하지 않는 체념이 생겼으나, 한국인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모 봉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부모는 養育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봉양의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유산상속이 있건 없건 장남은 父母奉養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次男이나 딸들은 형식적 공경만으로 부모의 사랑을 차지한다. 장남이라는 숙명 때문에 出嫁하여온 며느리마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할 때 장남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겼다.

3. 靑少年의 孝行을 위하여 成人들의 價値觀부터 바로 서야 한다.

旣成世代들은 새 세대와의 괴리를 느끼며 세태가 달라졌음을 한탄한다. 이러한 世代間의 간격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으로 비단 현대에 한 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하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다. 문화해체의 역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저해요인의 구실

을 하는 성인들의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孝道에 관해서도 時代感覺이 예민한 청소년보다는 孝道를 받게 될 입장에 놓인 旣成世代의 孝觀念이 청소년들의 孝에의 참여를 둔화시키고 있지나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새 세대의 孝道觀은 어찌되었건 성인들에게서 배운 것이지 서양인들에게서 직수입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孝道觀이 옛날과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비난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원인이 반드시 서구화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 부모, 선배 할 것 없이 새 윤리를 눈뜨게 해놓고 한편에서 이를 비난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셈이다.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의 교사는 성인들이다. 이 성인들의 孝道觀, 즉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심과 立身出世를 바라면서 한편으로 부모에 대해서 전통적 복종과 恭敬을 원하는 모순과 갈등이 있는 한 새 道義의 탄생은 지연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孝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성인들의 노력은 학교교육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성인들 스스로의 價値選擇에 좀 더 적극성을 띠워야 할 것이다.

4. 孝의 實踐이 바람직한 社會秩序로 이어져야 한다.

近來에 와서 孝는 百行의 근본이기보다는 多元的인 현대사회에서 가정윤리에 한정시킨 느낌이 든다. 가정 안에서도 윤리의 근본으로 축소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孝는 垂直的인 가정질서로서 水溶性이 강하지만 사회적 인간관계로 파급되지 못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孝의 성숙에 대한 만족은 우리 스스로 받기보다는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정신이나 종교적 경지로 이끌어 가야 한다. 우리는 東方禮儀之國

을 자랑해 왔지만 물질문명, 경제성장을 쫓기다 보니 새로운 정신문화와의 균형발달을 못하고 급기야는 정신적 낙후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옛날의 德目에는 없던 공중도덕이나 교통도덕은 새롭게 생긴 것이다. 여기에 대한 孝行의 적용은 인간관계에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적 기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린이가 어른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중년의 어른들은 노인과 귀엽고 가냘픈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새 德目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孝行에 대한 社會的 認定이 必要하다.

옛날에는 孝子碑, 烈女門 등 孝에 대한 본보기가 많았다. 사회에서는 그들의 孝行을 잊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근래에 와서도 孝行賞이 있기는 하지만 本質에 비하면 사회의 인정은 매우 낮다. 孝行에 보상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표본과 孝의 사회적 확장을 위하여 포상은 물론 사회적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忠君愛國志士 유적과 같이 孝行者의 遺蹟도 聖域化하여 청소년과 사회윤리의 훌륭한 교재로 삼아야 할 것이다. 社會正義가 孝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낼 때 孝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도 따라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6. 孝의 生活化를 위한 社會敎育機關의 積極的 活動이 必要하다.

사회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서 大衆媒體(매스미디어)를 들 수 있다. 방송매체가 孝行에 대한 교육을 해준다면 그 효과는 학교교육을 능가할 것이다. 대중매체(매스미디어)의 孝에 관한 내용은 가족이 동석하여

孝에 대해 思考하고 행동하는 기회를 주며, 간단한 대화 속에서도 孝의 價値觀,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소설, 영화, 연극 속에는 勸善懲惡의 요인이 포함되게 마련이고 善人이 끝에 가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줄거리에서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면서 어떤 善(孝)이 진정한 善(孝)인가를 설명하는 주게 된다는 것은 곧 이 사회의 이상을 설명함과 같다 할 것이다.[136]

사회적 행위를 理想的인 데로 유도하여 社會理想을 실현하려는 시민 사회운동 단체가 가정윤리로서의 孝를 사회윤리로 확대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孝 실천 운동으로서 사회운동은 主婦團體나 宗敎團體 등이 앞장설 만한 활동 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儒敎經典에 나타난 孝思想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摘示하여 현대사회에서의 孝槪念의 정립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했으나, 孝思想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영구성을 지니는 사상이며 어느 특정한 시대나 민족에만 요구되는 사상도 아니다.

孝는 人性의 근본이고, 倫理의 기초이고, 또한 仁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孝道를 제창한다고 고지식하고 고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孝란 奇行도 靈驗도 아닌 人格形成, 人格陶冶의 근본이라는 사실 속에 깃들어 있음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孝子의 門에서 忠臣이 난다는 말과 같이 가정 안에서 다져진 한 인격, 孝行이 사회인으로서도 원숙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꼭 孝道라는 고전적 단어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孝란 부모를 가진 全人類가 共有하는 인간의 지극한 德目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儒敎의 孝思想은 내 부모에 대한 사랑과 恭敬의 정신을 기반

136) 송복. 「孝思想과 社會發展」,『孝思想과 未來社會』,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

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며,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여 궁극적으로 하늘을 공경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孝思想의 本質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정한 공동체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孝의 실천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차주환(譯). 韓譯『論語』, 敎文社, 2005.

張基槿(譯). 新完譯『論語』, 明文堂, 2002.

張基槿(著).『道德 倫理 孝道의 原理와 實踐』, 主流· 一念社, 1996.

권영한(譯).『孝經』, 전원出版社, 2000.

최준하(譯).「孝에 대한 儒·佛 經典의 譯註 및 比較考察」, 忠南大學校 出版部,2003.

成百曉(譯).『孟子集註』, 傳統文化硏究會, 1999.

柳正基 監修. 新譯講讀『四書三經』, 明文堂, 1994

李基奭(譯).『小學』, 弘信文化社, 1994, pp.60~63.

朴一峰. 『小學』, 圖書出版 育文社, 2003. pp.51~54.

이상임(譯).『儒家의 孝道 思想』, 에디터, 2002.

裵鉀齊(著).『人性과 孝道』, 社團法人 韓國孝道會, 1998.

菹善均. 「孝와 作用과 實踐」論文集, 淸州大學, 1976.

張基槿(著).『儒敎와 道德政治』, 圖書出版 서원,1999.

池敎憲,外6人.『傳統倫理의 現代的 照明』,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9.

李乙浩.「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忠孝思想」, 國民倫理敎育세미나,油印物 1977.

安秉煜(著).『現代人의 忠孝思想』, 大韓敎育 文化硏究所. 1998.

李敦熙.「敬老 孝親의 敎育」, 서울시 敎育委員會, 1985.

高永復.「傳統社會의 孝槪念과 現實的 課題」,『現代社會와 老人福祉』, 峨山社會福祉財團, 1983.

朴在侃.「傳統的 孝思想과 現代的 意義」,『傳統倫理의 現代的 照明』, 韓國精神文化硏究, 1989.

송복. 「孝思想과 社會發展」,『孝思想과 未來社會』,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